

강원 영서지역 남, 여 대학생의 건강 기능성 식품인 인삼 및 인삼제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

†김나영 · 채현석 · 박성진* · 윤덕인** · 서강태*** · 배현수****

송호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한림성심대학교 관광외식조리과, **관동대학교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백석문화대학교 외식산업부, *초당대학교 조리과학부

Investigation on the Perception of the Ginseng and Ginseng Product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Yeongsu, Gangwon-do

†Na-Young Kim, Hyun-Seok Chae, Sung-Jin Park*, Deok-Ihn Yoon**,
Kang-Tae Seo*** and Hyun-Soo Bae****

Dept. of Hotel Culinary Art, Songho College, Hoengseong 225-704, Korea

**Dept. of Tourism Food Service Cuisine,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Chuncheon 200-711, Korea*

***Dept. of Hotel Cusin & Food Service Management,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210-701, Korea*

****Dept. of Foodservice Industry Division, Baeseok Culture University, Chumgnam 330-705, Korea*

*****Dept. of Culinary Art, Chodang University, Jellanamdo 534-701, Korea*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ginseng and ginseng products among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Yeongsu, Ganwon-do. 196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for our study. The ginseng intakes of male students(59.1%) was significantly($p<0.05$) higher than the intake of female students(40.9%). The primary reasons for consuming ginseng were to “Maintain my [one’s] health” and to, “Restore my [one’s] energy”. The reasons for not consuming ginseng were “Taste” and, “Physical constitution”. Consumers purchased the following ginseng products at the market: For males, ginseng wine(21.7%), ginseng beverage(17.4%), ginseng candy(17.4%) and ginseng kimchi(17.4%) for females, Korean ginseng snacks(23.3%), ginseng yogurt(20.9%), ginseng candy(14.0%), and ginseng jelly(11.6%).

Key words: ginseng, Korean ginseng snacks, ginseng yogurt, ginseng candy, ginseng wine

서론

인삼은 여러 가지 건강 증진 효능을 가진 전통적인 약재로 다양한 약리적 효과가 연구 보고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식물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삼을 이용한 기호 식품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각종 다류, 청량음료 및 건강식품에 첨가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Okuda & Yoshida 1980).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이용되어온 인삼

은 식물학적으로 오가피과(Araliaceae), 인삼속(*Panax*)에 속하는 식물로서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한다. 여기서 “*Panax*”란 어원은 희랍어로 *Pan(all)*과 *Axos(cure)*의 복합어로 만병을 치료한다는 뜻이다(Park JD 1996). 고려 인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오래전부터 건강 증진이나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우수한 식품 및 약재로서 소중히 여겨왔다(Lee SH 1989).

인삼 및 인삼제품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중추신경계에

† Corresponding author: Na-Young Kim, Dept. of Hotel Culinary Art, Songho College, Hoengseong 225-704, Korea. Tel: +82-33-340-1188, Fax: +82-33-340-1187, E-mail: root0819@songho.ac.kr

대한 작용, 뇌기능 증진 효능, 항암 작용, 면역기능 조절 작용, 항당뇨 작용, 간기능 항진효능, 심혈관 장애개선 및 골다공증에 미치는 효과, 항스트레스, 항피로 및 성행동 장애 개선 작용, 항위궤양 및 항염증 작용, 신장기능 장애에 대한 효과, 항산화 활성 및 노화억제 효능, 방사선 장애 방어효능, 마약해독 작용이 있다(Lee SH 1989; Oura 등 1971).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국민들의 경제적, 물질적 풍요에 따른 생활수준 및 교육 수준의 향상은 소비생활에 많은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기본적인 양적 삶의 영위보다는 보다 심층적인 질적 삶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생명과 직접 관련된 식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Ko 등 1990; Park 등 2009), 건강 지향적 식생활 형태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는 최근 생활양식 및 식생활에서의 급격한 산업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 증대, 생활수준의 향상(Jin 등 2008)과 함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추구로 인삼이나 홍삼에 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Park 등 2007). 이러한 인삼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인삼이 중장년층, 노년층이 섭취하는 보약개념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어린이, 청소년층, 여성층 등 다양한 소비자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품 출시와 질병 예방, 건강 유지 등 일반인들의 관심 증가로 소비자층이 확대되었으나(Park 등 2007), 실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기호동향을 조사·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 될 대학생의 식습관은 미래의 소비성향을 가장 잘 반영할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한 기존 제품의 품질 개선 방향과 새로운 제품 개발 방향 설정이 절실하며, 그 의의 또한 크다고 본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품기호도 조사·연구로는 식품영양학적 측면에서 소수가 이루어져 있을 뿐 인삼에 대한 기호도 조사·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Sung 등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 영서 지역 남, 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삼과 건강에 관련된 일부 사항 및 인삼제품에 대한 선호도 등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는 새로운 인삼을 이용한 식품이나 음식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강원 영서 지역 남, 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항목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가 낮은 문항들은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설문을 작성하

였다.

설문지는 강원 영서 지역 남, 여 대학생들에게 250부를 배포하여 22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통계처리에 부적절한 24부를 제외한 196부(남자 대학생 103부, 여자 대학생 93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일반적 사항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한 달 용돈, 가계 월수입 등을 조사하였다.

2) 건강에 관련된 사항

건강 유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여부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3) 인삼에 대한 인식도

응답자들의 인삼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삼의 섭취 여부와 그에 따른 섭취 횟수, 섭취 이유, 섭취하지 않는 이유, 제품의 형태, 가격, 구입 장소 등을 조사하였고, 인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와 인삼제품의 선호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한 자료의 유의성 검증 χ^2 -Test에 의하여 성별, 그룹간의 유의성은 *t*-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조사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 남자 103명, 여자 93명으로 전체 1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00만 원 이하의 가족수입은 남자 1.0%, 여자 3.2%이고, 100~150만 원은 남자 12.6%, 여자 11.8%, 150~200만 원은 남자 19.4%, 여자 20.4%, 200~250만 원은 남자 20.4%, 여자 16.1%, 250~300만 원은 남자 13.6%, 여자 19.4%, 300만 원 이상은 남자 33.0%, 여자 29.0%로 나타났고, 한 달 용돈은 10만 원 이하의 남자 13.5%, 여자 11.8%, 10~20만 원은 남자 31.7%, 여자 34.4%, 20~30만 원 남자 27.9%, 여자 26.9%, 30~40만 원은 남자 13.5%, 여자 19.4%, 40~50만 원은 남자 7.7%, 여자 4.3%, 50만 원 이상은 남자 5.8%, 여자 3.2%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

Characteristics		Male	Female	Total
Age	19~25	103(100.0)	92(98.9)	195(99.0)
	26~30	0(0.0)	1(1.1)	1(1.0)
Family's income (thousand won/month)	Less than 1,000	1(1.0)	3(3.2)	4(2.0)
	1,000~1,500	13(12.6)	11(11.8)	24(12.2)
	1,500~2,000	20(19.4)	19(20.4)	39(19.9)
	2,000~2,500	21(20.4)	15(16.1)	36(18.4)
	2,500~3,000	14(13.6)	18(19.4)	32(16.3)
	More than 3,000	34(33.0)	27(29.0)	61(31.1)
An allowance (thousand won/month)	Less than ₩100	14(13.5)	11(11.8)	25(12.8)
	₩100~200	33(31.7)	32(34.4)	65(33.2)
	₩200~300	29(27.9)	25(26.9)	53(27.0)
	₩300~400	14(13.5)	18(19.4)	32(16.3)
	₩400~500	8(7.7)	4(4.3)	12(6.1)
	More than ₩500	6(5.8)	3(3.2)	9(4.6)
Total		103(52.6)	93(47.4)	196(100.0)

2. 조사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식생활에서도 웰빙을 추구하는 추세이다. Table 2는 성별에 따른 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나타냈다. 남학생들에게서는 건강에 대한 인식(3.47)과 규칙적인 운동(3.13)이 건강요인에 중요한 요소라 답을 했으며, 여학생들은 건강에 대한 인식(3.11), 규칙적인 운동(2.20)이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 답하였다. 또한 여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3.69), 충분한 수면(2.98)이 건강에 미치는 요인이라 답한 비율이 남학생들보다(3.38/2.59)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Jung 등(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체내대사에 맞는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식품 선택 등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Table 2. Opinion¹⁾ related to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

	Male	Female	Note
Healthy	3.47±1.01	3.11±0.87	t=2.57*
Exercise	3.13±1.09	2.20±0.99	t=6.35*
Eating habit	2.47±0.93	2.61±1.05	t=-0.99
Stress	3.38±1.01	3.69±0.77	t=-2.449*
Sleep	2.59±1.08	2.98±0.89	t=-2.816*

¹⁾ 1=disagree very much, 5=agree very much.

* $p < 0.05$, p -value by t -test.

Table 3은 성별에 따른 건강 유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모두 유의성($p < 0.05$)이 있었다. 운동이 남자 48.1%, 여자 26.0%, 수면이 남자 21.2%, 여자 15.6%, 식습관이 남자 9.6%, 여자 30.2%, 스트레스 해소가 남자 14.4%, 여자 19.8% 응답했다. 이 결과, 남자는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식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 Paek(2003)의 연구에서도 식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건강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식습관(39.8%), 운동(38.8%), 타고난 체질(13.2%), 스트레스 해소(5.5%)로 식습관과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Yoon 등 1998).

Table 4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성별에 따라서 TV, 라디오는 남자 51.5%, 여자 60%, 신문, 잡지는 남자 14.9%, 여자 16.7%, 친구와 가족은 남자 11.9%, 여자 11.1%, 의료전문가가 남자 9.9%, 여자 1.1%, 기타로 남자 11.9%, 여자 11.1% 응답하였다. 건강에 대한 정보는 얻는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TV, 라디오를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간에 유의성($p < 0.05$)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기보다 주변사람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건강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Kim & Lee 1995; Park SJ 1992),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건강식품의 품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Park MH 1995).

Table 3.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health maintenance by gender

N(%)

Gender	Exercise	Sleep	Eating habit	Stress	Total	Note
Male	50(48.1)	22(21.2)	10(9.6)	15(14.4)	97(52.4)	$\chi^2=18.992^*$ $p<0.0001$
Female	25(26.0)	15(15.6)	29(30.2)	19(19.8)	88(47.6)	
Total	75(37.5)	37(18.5)	39(19.5)	34(17.0)	185(100.0)	

* $p<0.05$, p -value by chi-square test.**Table 4. The method to get health information by gender**

N(%)

Gender	TV, radio	Newspaper, magazine	Friend, family	Medical expert	Other	Total	Note
Male	52(51.5)	15(14.9)	12(11.9)	10(9.9)	12(11.9)	101(52.9)	$\chi^2=7.155$ $(P=0.128)$
Female	54(60.0)	15(16.7)	10(11.1)	1(1.1)	10(11.1)	90(47.1)	
Total	106(55.5)	30(15.7)	22(11.5)	11(5.8)	22(11.5)	191(100.0)	

* $p<0.05$, p -value by chi-square test.

3. 인삼에 대한 인식도

인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 여러 가지 건강 증진 기능을 가진 전통적인 약재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식물로 다양한 약리적 효과를 가지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Kim & Lee 1995) 인삼을 이용한 기호식품(Koo NS 1999) 및 인삼요리의 소비가 증가되고 있어 각종 다류, 청량음료 및 건강식품에 첨가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Chang 등 1999).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인삼의 섭취는 남자 59.1%, 여자 40.9%로 남자가 여자보다 인삼을 더 많이 섭취해본 것으로 나타나 성별 간에 유의성($p<0.05$)이 있는 것

Table 5. Intake experiment of ginseng by gender N(%)

Gender	Intake of ginseng		Total	Note
	Yes	No		
Male	75(59.1)	23(35.9)	98(51.3)	$\chi^2=9.103^*$ $(p=0.003)$
Female	52(40.9)	41(64.1)	93(48.7)	
Total	127(66.5)	64(33.5)	191(100.0)	

* $p<0.05$, p -value by chi-square test.

으로 나타났으며, Sung 등(1989)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13~18% 정도 복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은 최근 6개월간의 인삼 섭취 횟수에 대한 결과이다. 최근 6개월간 인삼 섭취가 1~2회인 경우는 남자 75.3%, 여자 67.3%, 3~4회가 남자 8.2%, 여자 15.4%, 5~6회가 남자 5.5%, 여자 7.7%, 7~8회가 남자 2.7%, 여자 3.8%, 9회 이상이 남자 8.2%, 여자 5.8%로 성별에 따른 6개월간 인삼 섭취는 남자와 여자 모두 1~2회가 75.3%, 67.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유의성($p<0.05$)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성별에 따른 인삼의 섭취 이유에 대한 결과이다. 인삼이 건강에 좋아서 섭취하는 응답자가 남자는 68.1%, 여자는 63.8%, 노화 방지가 남자 2.8%, 여자 2.1%, 원기 회복을 위해서가 남자 26.4%, 여자 29.8%, 체질상 잘 맞아서가 남자 2.8%, 여자 4.3%로 응답하였으나 유의성($p<0.05$)은 나타나지 않았다. Sung 등(1989)의 연구에서 인삼에 대한 용도 인식은 성별에 관계없이 74%가 식품으로 분류하여 인삼을 약으로 보다는 건강 유지의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 모두 인삼이 건강에 좋아서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6. Frequency of ginseng Intake during recent 6 months

N(%)

Gender	Frequency of intake during 6 month					Total	Note
	1~2	3~4	5~6	7~8	More than 9		
Male	55(75.3)	6(8.2)	4(5.5)	2(2.7)	7(8.2)	73(58.4)	$\chi^2=2.266$ $p=0.687$
Female	35(67.3)	8(15.4)	4(7.7)	2(3.8)	3(5.8)	52(41.6)	
Total	90(72.0)	14(11.2)	8(6.4)	4(3.2)	9(7.2)	125(100.0)	

* $p<0.05$, p -value by chi-square test.

Table 7. The reason for taking ginseng by gender

N(%)

Gender	Maintain my health	Aging prevention	Restore my energy	Improving my physical constitution	Total	Note
Male	49(68.1)	2(2.8)	19(26.4)	2(2.8)	72(60.5)	$\chi^2=0.427$ ($p=0.935$)
Female	30(63.8)	1(2.1)	14(29.8)	2(4.3)	47(39.5)	
Total	79(66.4)	3(2.5)	33(27.7)	4(3.4)	119(100.0)	

* $p<0.05$, p -value by chi-square test.

Table 8은 성별에 따른 인삼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결과이다. 맛이 없어서 인삼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남자 13.6%, 여자 47.5%, 체질상 맞지 않아서가 남자 50%, 여자 20%, 가격이 비싸서가 남자 13.6%, 여자 20%, 기타 응답자가 남자 22.7%, 여자 12.5%였다. 남자는 체질상 맞지 않는 이유로, 여자의 경우 맛이 없어서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성별 간에 유의성($p<0.05$)이 나타났다.

Table 9는 성별에 따른 인삼제품의 선호도 조사에 대한 결과이며, 남자는 인삼술(21.7%)>인삼음료, 인삼캔디, 인삼김치(17.4%)>인삼정과(13%)>인삼떡(4.3%)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내었으며, 여자는 인삼정과(23.3%)>인삼요구르트(20.9%)>인삼캔디(14%)>인삼젤리(11.6%)>인삼술(9.3%)>인삼음료(7%)>인삼과자, 기타(4.7%)>인삼밥, 인삼김치(2.3%) 순으로 선호하였다.

Song & Kim(1991)의 연구에 따르면 인삼을 김치에 첨가함으로써 기호성이 우수하고 가식기간의 연장효과를 얻을 수 있는 김치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인삼첨가군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삼 2%군이 경제성 및 기호성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e & Paek(2003)의 연구에서는 배양인삼 0.5%와 1.0%의 첨가 요구르트가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우수하였고, 다른 항목들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값을 보였다. 이는 인삼을 첨가한 인삼제품의 기호성이 위의 연구결과와 같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진 것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삼은 한약재이지만 서양의 허브류나 스파이스 계통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닭고기, 햄버거, 핫도그, 햄, 소시지, 야채 등 거의 모든 음식에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된다면 대학생들의 기호도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Table 8. The reason for not taking ginseng by gender

N(%)

Gender	Taste	Physical constitution	Price	Other	Total	Note
Male	3(13.6)	11(50.0)	3(13.6)	5(22.7)	22(35.5)	$\chi^2=10.000^*$ ($p=0.019$)
Female	19(47.5)	8(20.0)	8(20.0)	5(12.5)	40(64.5)	
Total	22(35.5)	19(30.6)	11(17.7)	10(16.1)	62(100.0)	

* $p<0.05$, p -value by chi-square test.

Table 9. The preference of ginseng products by gender

N(%)

	Male	Female	Total
Ginseng jelly	0(0.0)	5(11.6)	5(7.6)
Ginseng yogurt	0(0.0)	9(20.9)	9(13.6)
Ginseng beverage	4(17.4)	3(7.0)	7(10.6)
Ginseng candy	4(17.4)	6(14.0)	10(15.2)
Ginseng snack	0(0.0)	2(4.7)	2(3.0)
Ginseng rice	0(0.0)	1(2.3)	1(1.5)
Ginseng rice snack	1(4.3)	0(0.0)	1(1.5)
Ginseng wine	5(21.7)	4(9.3)	9(13.6)
Ginseng Korean snack	3(13.0)	10(23.3)	13(19.7)
Ginseng kimchi	4(17.4)	1(2.3)	5(7.6)
Other	2(8.7)	2(4.7)	4(6.1)
Total	23(34.8)	43(65.2)	66(100.0)

결론

본 연구는 강원 영서 지역 남, 여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건강에 관련된 의식 및 건강에 관련된 인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대학생 총 196명을 대상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 녀 모두 건강 유지를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정도, 운동 등이 건강 유지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분석되었고, 특히 남자는 운동(48.1%)을, 여자는 식습관(30.2%)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남자(51.5%), 여자(60%) 모두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간에 유의적인($p<0.05$) 차이는 없었다.

인삼 섭취 여부는 남자(59.1%), 여자(40.9%)가 섭취를 한 경험이 있다고 분석되었고,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섭취한 경험이 유의적으로($p<0.05$) 높게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인삼 섭취는 남자(75.3%), 여자(67.3%) 모두 1~2회 섭취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삼의 섭취 이유는 남자, 여자 모두 건강에 좋아서, 원기 회복을 위해서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인삼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는 체질상 맞지 않아서, 기타의 이유 순으로 응답하였고, 여자는 맛이 없어서 먹지 않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 이유가 체질상 맞지 않아서 및 가격이 비싸서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인삼제품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남자는 인삼술(21.7%), 인삼음료(17.4%), 인삼캔디(17.4%), 인삼김치(17.4%)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인삼떡(23.3%), 인삼요구르트(20.9%), 인삼캔디(14%), 인삼젤리(11.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삼제품은 영유아, 청소년 등 소비자 각 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또는 신소재화 개념의 제품 개발로 건강증진 효과를 주는 기능성식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호 식품으로써의 기대감도 크므로 인삼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의 방향 설정에 이용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Chang NS, Kim JM, Kim EJ. 1999. Nutritional state and dietary behavior of the free-living elderly women. *Korean J Food Culture* 14:207-218
- Jin YH, Jo JO, Moon HY.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traditional food acce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with food majors in Seoul on menu development. *Korean J Culinary Res* 14:176-187
- Jung HK, Lee JH, Jo MS. 1999. The study on the health control of food by adults in Seoul. Korea Food Culture Institute 7:525
- Kim HS, Lee KA. 1995. A survey on using health supplemental foods. *J Living Science Chungbuk University Collection of Dissertations* 2:39-45
- Koo NS. 1999. Eating life of over middle aged persons and dietary guideline for their healthy elderly life. *J Living Science Daejeon University Collection of Dissertations* 5: 67-80
- Ko SH, Cho MO, Choi YH, Kang SP. 1990. Study of folk caring in Korea for cultural nursing. *J Korean Acad Nurs* 20: 430-458
- Lee IS, Paek KY. 2003. Preparation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yogurt added with cultured ginseng. *Korean J Food Sci & Technol* 35:235-241
- Lee SH. 1989. Effect of ginseng saponins on the biosynthesis of prostglandins. *Korean J Ginseng Sci* 13:202-210
- Okuda H, Yoshida K. 1980. Studies on the effect of ginseng components on diabetes mellitus. 53. *Proc. 3rd Int'l Ginseng Symp.* Seoul
- Oura H, Hiai S, Nakashima S, Tsukada K. 1971. Stimulating effect of the roots of *Panax ginseng* C.A. Meyer on the incorporation of labeled precursors into rat liver RNA. *Chem Pharm Bull* 19:453-459
- Park CK, Kwak YS, Hwang MS, Kim SC, Do JH. 2007. Trends and prospect of ginseng products in market health functional food. *Food Sci & Industry* 40:30-45
- Park JD. 1996. Recent studies on the chemical constituents of Korean ginseng. *Korean J Ginseng Sci* 20:389-415
- Park MH. 1995. The classification, problems, usage of health food. *月刊食生活* 12:74-78
- Park MR, Kim YA, Yoon KS, Liu F, Byun GI. 2009. A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food in Shenyang region of China. *Korean J Culinary Res* 15:169-180
- Park SJ. 1992.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the intake of nutrient supplements and health foods, dietary behavior and health: Mainly for women and men who live in Seoul city. Master's Thesis, Dongguk Uni. Seoul. Korea
- Song TH, Kim SS. 1991. A study on the effect of ginseng on quality characteristics of kimchi. *Korean J Soc Food Sci* 7:81-88
- Sung HS, Yang JW, Jeon BS, Kim NM, Kim YD. 1989. The study of preferences for ginseng in Korean. *J Ginseng Res* 13:130-135
- Yoon EY, Lim YH, Wanh SK, Koo NS. 1998. Survey on food habits, health condition and precaution for disease for the health improvement of community people in Daejeon. *Korean Assoc Human Ecology* 7:205-216

접 수 : 2012년 6월 16일
 최종수정 : 2012년 7월 11일
 채 택 : 2012년 7월 17일